

2단계 BK21, '경쟁' 이 성공 보증수표

글 | 이영무 _ 한양대 산학협력단장 · 화학공학과 교수 ymlee@hanyang.ac.kr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 동안 관심을 끌어 왔던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선정결과를 지난 4월 26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2조 원을 투입, 분야별로 특성화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2단계 BK21에는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사업분야에 72개 대학 243개 대형 사업단, 325개 사업팀이 선정됐다. 과학기술분야에 매년 1만8천 명, 인문사회분야에 2천500명 등 전체 대학원생의 17%에 해당되는 2만1천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해 국가 성장동력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력과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단계 의견수렴, 결과 공개로 공정성 확보

심사위원 선정시에도 각 학회에 추천을 의뢰했고, 선정과정에 산업계 및 해외인사를 참여토록 했다. 심사 단계도 다단계로 나눠 요건 심사, 계획서 심사, 단장 인터뷰 등으로 진행해 보다 객관적인 심사 형태를 취했다. 또한 가지 특징은, 신청한 모든 사업단(팀)의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음을 자신 있게 내보였다는 것이다.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이의제기 등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과학기술분야는 기초과학에 436억 원, 응용(융합)분야에 1천302억 원 등 연간 총 1천738억 원이 지원된다. 전국 라운드의 경우 99개 사업단에 1천329억 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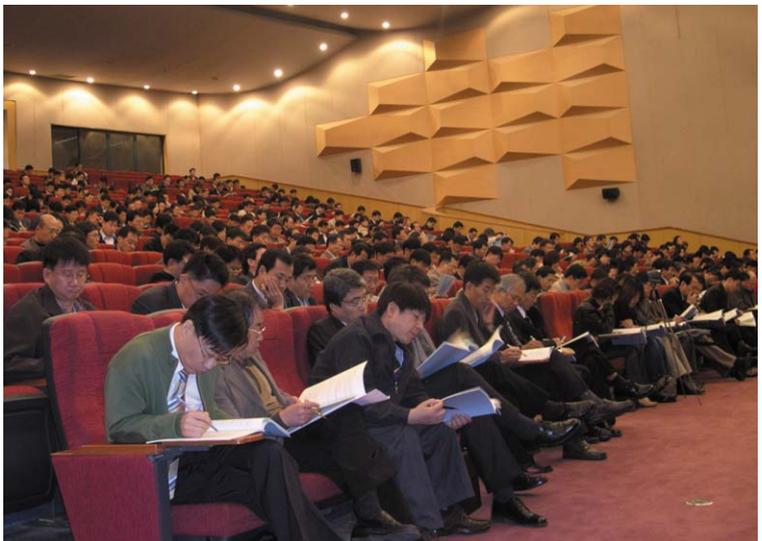
우수 대학원 58개 사업단에 409억 원이 지원돼 수도권과 지방간 연구 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인문사회분야는 과학기술분야보다 적은 280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공고 당시 45개 사업단을 선정한다고 했으나, 최종 61개로 사업단을 확대·선정했다.

핵심사업분야에 과학기술분야 246팀(484억 원), 인문사회 79팀(90억 원) 등 총 71개 대학 325개 사업팀을 선정해 참여 대학원생 4천100명에 574억 원이 지원된다. 그 외 전문서비스분야, 의료 및 경영분야에 각각 21개, 4개를 선정해 212억 원을 지원한다.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사업단(팀)에 대해 사업비 삭감 등을 포함한 불이익 조치를 할 것이고,

각대학, 산업체, 연구소 등에서 온 사람들이 '2단계 BK21 사업' 소개를 듣고 있다.



특히 2008년과 2011년에는 엄격한 중간평가를 통해 협약 미이행 사업단(팀)을 탈락시키고 하위 사업단(팀)은 새로이 진입하는 사업단(팀) 경쟁 시스템을 마련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쟁시스템으로 '무임승차' 차단

이번 2단계 사업의 특징은 1단계보다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해 국가발전을 위한 선도 핵심 고급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고 1천100여 개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과학기술 응용분야 사업단의 경우 현재 2천건 수준의 특허등록 건수를 2012년경에는 1.5배 증가한 3천600건 수준으로 늘릴 전망이다. 아울러 기업체로의 기술이전 건수 및 액수를 평가기준에 넣어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선정결과를 지켜보면서 1단계의 경험을 살려 사업기획을 장기간 조심스럽게 진행했고,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민주적이고 성숙한 사업으로 발전시켰음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사업단간 뿐만 아니라 사업단내에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해 참여 교수의 수를 제한토록 함으로써 무임승차를 없애고 연구력이 제고 되도록 했다.

그러나 공고 후 선정과정에서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돼 혼란스러웠던 점은 아쉽다는 평가다. 산업체 참여가 각 사업단 차원에서 이뤄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기업들이다.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BK21 사업에 참여토록 했어야 했고, 대응투자도 각 사업단과 개별 기업형태가 아니라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차원에서 적극 동참했어야 했다.

2단계에선 '하위 20% 사업단 탈락'

2단계 BK21 사업은 인력양성 사업이다. 사업비의 60% 가량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이고, 20%는 신진인력 인건비, 10%는 국제 활동비, 그리고 나머지 약 10% 이내가 사업비로 구성돼 있다. 예산의 주용도가 연구비가 아닌란 얘기다. 그러나 평가는 참여 교수들의 연구성과, 즉 SCI 논문, 연구비 규모, 산학협동 실적, 기술이전 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참여 교수들 입장에서 보면 '교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는 불만이 나올 만도 하다.

1단계보다는 SCI 논문에 대한 평가 배점은 응용사업단의 경우 낮아 논문에 대한 부담은 적다. 그 대신 산학협력 실적에 많은 평가 배점이 할당됐고, 실제 참여 교수 선정 과정에서 논문만 쓰고 산학협력 실적이 없는 교수들이 배제됐다. 기초분야는 여전히 논문에 비중을 뒀 1 단계에서처럼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게 된다. 질적인 인자도 고려해 좋은 저널에 실리도록 유도한 것이라 해석된다.

2단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단내에서의 경쟁체제가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참여 교수 대부분이 7년 동안 중도하차 없이 이끌어왔거나, 학과의 전교수가 참여하는 등 경쟁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탈락되는 사업단도 없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하위 20% 사업단 탈락'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선정된 사업단들도 긴장하고 있어 평가 준비를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2단계 BK21 사업이 이제 막 출범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경쟁체제가 그 동안 대학내에 팽배했던 안일주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하고 세계 속에서 경쟁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가 될 것이다. ㉔

2005년 4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BK21사업 성과분석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포토